

네팔 강진, 불교 유적 훼손 심각

네팔을 강타한 강진으로 세계적인 불교 유적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RNS' 지는 "네팔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Lumbini)를 비롯해 원숭이 사원(Monkey Temple)으로 불리는 스와야부나트(Swayambhunath), 보다나트(Boudhanath)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비롯한 불교 유적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이 중 스와야부나트(Swayambhunath)와 보다나트(Boudhanath)가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카트만두 중심가에서 약 2km 떨어진 가파른 언덕에 흰 돌과 황금빛 첨탑으로 이루어진 스와야부나트는 2,000년 전에 건립된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이다. 일대가 원숭이 서식지인 이유로 일명 '원숭이 사원'로 유명하다.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인 스와야부나트의 상단부에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상징하는 붓다의 눈이 그려져 있고, 경내의 다양한 색채와 불상들은 네팔 불교 미술의 진수로 평가됐다.

"스와야부나트와 그 주변에는 언제나 참배객과 관광객들로 가득했다"는 'National Geographic'은 "불교 경전이 새겨진 마니차를 돌리며 이곳을 한 바퀴 도는 순례자와 스님의 경건한 모습, 명상을 하거나 낮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특히 이들은 카트만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스와야부나트 전망대 오르길 좋아했고, 그 주변에서 기념품점, 골동품 노점, 찻집 등을 즐겨 찾았다"고 전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티베트 불교 양식 탑인 보다나트 역시 이번 강진을 피하지는 못했다. 스와야부나트와 함께 카트만두를 상징하는 이곳의 스투파 역시 사방에는 붓다의 눈이 그려져 있고, 이마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눈인 '제3의 눈'이 그려져 있다.

이밖에도 카트만두의 랜드마크인 다라



4월 25일 네팔을 강타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스와야부나트(Swayambhunath)의 내부 모습. 이곳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자, 카트만두 계곡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유적이다. '스와야부'는 '스스로 움직였다'는 뜻이다.

스와야부나트, 보다나트 등 유네스코 지정유산 대거 파손

보디베추재단 등 각국 불교계 긴급 지원 나서

달라이 라마·갈왕 까르마파 등도 불교계 관심 환기

하라 탑도 완전히 무너졌다. 1832년 네팔의 첫 총리가 세운 이 탑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데, 지난 1934년 대지진으로 한 차례 무너져 재건됐으나 이번에 다시 붕괴됐다. 또 소라캅데기 모양으로 불교와 힌두교 사원이 모여 있는 박타푸르 두르바르(Bhaktapur Durbar) 광장, 3세기에 지어진 파탄 두르바르(Patan Durbar) 광장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강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세계 각국 불교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보디베추(Bodhivastu)재단은 산쿠(Sankhu)와 욘모(Yolmo)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는 한편 200만 달러 지원 기금을 조

성하고 있다. 다이렉트 릴리프(Direct Relief)는 이미 100만 달러에 상당한 약품을 우선 제공했고, 국제의료단체(International Medical Corps)와 함께 긴급 의료대를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대승불교 전통 보존 재단(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hayana Tradition, 이하 FPMT)은 150만 달러를 네팔을 비롯한 히말라야 소재 FPMT 지원에 보냈다. 글로벌기빙(Global Giving)재단은 생필품을 우선 제공했고, 비아그랜드씨클(Via Grand Circle)재단은 긴급 구호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고 미국 적십자와 함께 네팔 현지자를 방

문, 봉사하고 있다. 인도·네팔·티베트 지원을 위해 결성된 카루나쉬첸(Karuna Shechen)재단과 마르파(Marpa)재단, 국제 옥스팜(Oxfam International), 티베트 펀드(Tibet Fund) 역시 네팔 지원 행렬에 속속 들어왔다.

불교 지도자들도 각각의 성명을 내고 네팔 구호에 적극 관심을 보였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수실 코일랄라(Sushil Koirala) 네팔 수상에게 보내는 전문을 통해 "네팔에는 자유를 찾아 히말라야를 넘은 티베트 난민을 위한 정착지가 있을 정도로 네팔과 티베트는 가깝다"며 "이번 재해를 이겨내는 데 티베트 불교계는 힘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왕 까르마파(Gyalwang Karmapa)는 "파괴된 건물은 어떻게 복구하고 네팔 시민들을 도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카트만두와는 떨어져 있어, 비교적 안전했던 '카르마 계류 사원'의 스님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대중들을 구난하는 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네팔의 관광산업은 이번 강진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세계적인 유산과 에베레스트를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한 해에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숙박 및 쇼핑으로만 네팔이 벌어들이는 관광수입은 국내총생산(GDP·2014년 기준 196억 달러)의 3%에 달한다. 관광으로 파손되는 수입을 전부 합치면 GDP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관광산업은 네팔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강진으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의 관측을 분석하는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네팔이 이번 참사로 감내해야 할 경제적 손실 규모를 최대 1000억 달러까지 내다보고 있다. USGS 측은 "경제적 손실이 네팔의 GDP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손실 규모가 10억~100억 달러가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5천년 된 불교유적 '메스 아이낙' 파괴 위기

美 허프만 제작 'Saving Mes Aynak' 전 세계 상영



메스 아이낙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동남쪽 40km 떨어진 로가(Logar)주에 위치한 5천년 된 불교 유적이다.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브렌트 E. 허프만은 '메스 아이낙'의 문화적 보존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 'Saving Mes Aynak'을 7월 1일부터 전 세계에 상영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중국 구리광산개발 때문에 훼손 위험에 처한 '메스 아이낙(Mes Aynak)'을 지키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 세계에 상영된다.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브렌트 E. 허프만은 '메스 아이낙'의 문화적 보존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 'Saving Mes Aynak(메스 아이낙을 구하라)'를 7월 1일부터 전 세계에 상영할 방침을 밝혔다. 다큐멘터리영화 제작사 카템퀸(Kartemquin)과 공동 작업한 이번 영화는 작년 11월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개봉했다.

메스 아이낙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동남쪽 40km 떨어진 로가(Logar)주에 위치한 5천년 된 불교 유적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약 \$100bn 가치의 구리가 매장됐다고 알려진 메스 아이낙을 중국광물공사(Chinese state-owned mining company)에 30억 달러(한화 약 4조원)를 받고 개발권을 팔았다.

이에 중국은 2012년에 개발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프간 정부로부터 광산개발유예기간을 받아 3년 간 유적 발굴이 진행 중인 상태다. 영화 관계자들은 "개발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체 유적 중 약 10%만이 발굴됐다"며 "구리 개발에만 열안인 된 중국에 의해 메스 아이낙이 위

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를 연출한 허프만 감독은 "2001년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 탈레반이 바야반 석불을 폭파할 때 세계는 격노했다"며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메스 아이낙은 종교적 관점이 아닌 세계 문화유산으로 보존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Saving Mes Aynak'는 디지털영화 배포시스템 VHX, 카타르 민영방송사 알자지라와 알자지라인글리시 및 교육기관과 지역사회단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VHX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10%는 고고학자들이 메스 아이낙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한편 카템퀸은 후원형 펀딩사이트 인디고고와 함께 중국광물협회에 대한 아프간 정부와 유네스코의 국제적 압박을 요청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서명운동 사이트 Change.org에서는 아프간 대통령과 유네스코에 메스 아이낙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허프만 감독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소중한 역사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전 세계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이름 수습기자**

美 매니코워 카운티서 송끄란 축제 주목

본점사 재개원에 힘입어 ... 주민 참여 남달라

본점사, 밀워키에서 그린베이 사이 '사격 갖춘 사찰로 유일'

태국에서 건너온 불교축제 송끄란(Songkran)이 미국 위스콘신 남동쪽에 있는 매니토휴 카운티(Manitowoc County)에서도 주목됐다.

'Washington Times' 지는 "뉴턴 시의 본점사(Bounchun Buddhist Temple)의 송끄란 축제가 타이-라오스-캄보디아계 이주민만의 축제가 아닌 위스콘신 남동 지

역의 축제로 발돋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사격을 갖춰 다시 개원한 본점사의 송끄란 축제가 위스콘신 남동 지역 주민 15,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이목을 끌었다는 것이다.

아신 담마시리 스님(본점사 주지)은 "카운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농장을 구입, 사찰의 격을 갖췄던 게 단초가 되어 본점사

의 송끄란 축제가 피부색을 넘어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며 "본점사는 밀워키(Milwaukee)에서 그린베이(Green Bay) 사이에서 사격을 갖춘 유일한 사찰"이라고 말했다.

'Washington Times' 지는 스티브 마우어(Steve Maurer) 본점사의 대변인의 말을 인용, "매니토휴 카운티 이사회를 설득하는 과정만 3년 정도 소요됐고, 주불을 봉안한 법당은 물론 위생·편의시설까지도 카운티 규정에 맞춰 농장을 리모델링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스티브 대변인은 "안전한 사찰에서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지 않았다"며 "이는 매니 토휴 카운티에서 다양성이 존중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30여 년 전 상좌부 불교에 입문해 마하 스와티(Maha Swati)라는 법명을 수지했다.

또한 "불교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그 자체"라는 아신 담마시리 스님의 말을 인용한 'Washington Times' 지는 "본점사가 매니토휴 카운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현재까지 라오스·태국·캄보디아 이민자 중심의 상좌부계 사원이지만, 향후 매니토휴 카운티 밖의 불자도 합류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타이 부패불교 척결운동 확산

부다 이사라 스님, 불교계 정화 캠페인

타이 불교계가 격변의 상황에 놓인 가운데, 프라 부다 이사라 스님(Phra Buddha Issara)은 타이의 불교계를 점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신문 'SFGATE'는 4월 29일 "이사라 스님이 타이 불교 종단의 재정 상태를 투명화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척결 운동을 진행 중이다"고 보도했다. 최근 타이 스님들이 애인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음주운전 사고, 주식 투자 등 각종 부패를 일삼는 것에 대한 경고의 움직임이다.

타이는 인구의 95퍼센트가 불자인 만큼 불교 종단과 승려들에 대한 국민의 명망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스님들의 문란한 생활이 드러나자, 불교계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이사라 스님은 종단 재정을 직권 남용한 스님들에 대한 고발을 위해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타이 불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최적의 시점"이라며 "불교는 우리 국민의 집과 같다. 내 집 앞마당을 치우듯 더러운 곳을 구석구석 깨끗이 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이름 수습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부처님오신날 특별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78,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詩人 김하리 합장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문(39:25)	제8, 오색제자수기(21:11)	제15, 증지용출품(21:13)	제22, 축류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11:22)	CD08-제16, 여래수왕품(21:15)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보발공덕품(23:31)	CD10-제24, 모음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경보탈품(22:19)	제18, 수회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자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모장염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인락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연불사